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6. 5. 12.(화) 13시

## “전 세계 동포 이야기 1억 번 넘게 이어졌다” 유튜브채널 ‘동포ON’ 누적 조회 수 1억 회 돌파

- 재외동포 삶과 현지 이야기 담은 콘텐츠로 공감 확산
- 정책 정보부터 동포사회 현안까지... ‘소통형 플랫폼’으로 자리매김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)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공식 유튜브 채널 ‘동포ON’의 누적 조회 수가 1억 회를 돌파(5월 4일)했다고 밝혔다. 총 조회수 1억 회는 2025년 12월 9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넉 달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.
- ‘동포ON’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삶과 이야기, 현지 소식, 정책 정보 등을 영상 콘텐츠로 전달하는 재외동포청의 온라인 소통 채널이다.
  - 특히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, 세계 각지 동포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직접 담아내며 재외동포 사회와 국내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  - 그동안 ‘동포ON’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비롯해, 재외선거 제도 개선 캠페인, 국내 귀환동포 정착 이야기, 차세대 동포 콘텐츠, 현지 한인 사회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.
  - 특히 지난달 개편 이후로는 국무회의와 동포간담회를 편성해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했고, 생방송 ‘정책톡톡 소통톡톡’을 신설해 사전 질문과 실시간 채팅으로 재외동포와의 소통 폭을 넓혔다.
  - 또 “불편한 재외선거 바꿔주세요” 캠페인 영상이 38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공감을 얻었고,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

하는 재외국민들의 현실을 알리며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.

-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‘동포on’을 단순 영상 채널을 넘어 재외동포와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  - 이를 위해 해외 한인방송 및 현지 콘텐츠 협력을 확대하고, 주요 정책과 현안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라이브 콘텐츠와 참여형 콘텐츠도 강화할 예정이다.
  
-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“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소식과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회 수 1억 회를 넘어선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동포 이야기와 마음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”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	책임자	과 장	박병규 (032-585-3107)
		대변인실	담당자	사무관
				주무관

